



삼국유사 인물학 여행(遊行)

풍류도를 불교적으로 통섭한 '삼국유사'

1. 현묘한 도인 풍류도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에게 독자적 세계관이 있었다. 우리 민족의 생각의 체계는 '하늘님 신앙'과 '무교(巫敎)적 사유' 위에 기반을 두었다.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이들 천신신앙과 무속신앙은 점차 불교의 전래 이래 도교와 유교적 사유와도 만나게 되었다. 단군의 건국이야기는 부계적 천신인 환인(하늘)과 모계적 지모신인 웅녀(땅)가 만나 내적 조원신인 단군(사람)을 낳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단군 이야기는 환인의 신성성과 웅녀의 동물성이 단군의 인간성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것은 환인의 천(天)과 웅녀의 지(地)와 단군의 인(人) 삼재(三才)가 결국 하나이며 단군의 인간성 안에서 환인의 신성성과 웅녀의 동물성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신령을 매개하는 주술사인 무당(샤먼)을 통해 무속신앙으로 이어졌다. 이 땅의 무속신앙은 신선사상과 샤머니즘이 융합해 풍류도로 토착화했다.

하늘님 신앙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弘益人間]는 인간 중심(人本)과 인간 존엄[現世]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은 땅의 동물인 곰과 호랑이를 보듬어 인간이 되는 길을 연 뒤 이곳에 머물며 그들을 다스리고 교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환웅은 세계의 기원이나 내세 및 하늘의 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인간과 인간 세계에 대해 얘기했을 뿐이다. 또 단군과 주몽 및 박혁거세 이야기에 담긴 하늘님 신앙은 우리나라 건국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조선의 개조인 단군이 하늘님의 아들인 환인의 소생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개조인 주몽도 하늘님의 아들(天帝子)인 해모수(解慕漱)의 아들이며, 신라 개조인 박혁거세 역시 하늘님의 아들로 불린다. 이것은 우리가 중국과 대등한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닌 천자(天子)의 나라임을 암시해 준다. 나아가 신과 인간 혹은 신과 동물 사이의 조화정신과 자연친화 정신 및 생명존중 의식도 보여주고 있다.

풍류도는 신라 진흥왕이 청소년 수양단체인 원화(源化)에 이어 제정한 풍월도(風月道)로 제도화했다.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은 '난랑비서'에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이것을 만든 근원은 <선사(仙史)>에 상세히 갖춰있고" 역설했다. 고운은 또 "집안에 들어와선 부모에게 효도하고 벼슬하면 나라에 충성함은 노나라 공자(孔子, 可也)의 처지요, 힘이 없는 일에 처하고 말이 없는 가르

침을 행함은 주나라 노자(老子, 柱史)의 중지며,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높여 함은 축건(인도의 석존(釋尊, 太子)의 교화"라고 했다. 풍월도의 주체인 화랑(花郎)은 산천을 순례하고 심신을 단련하면서 인위를 배격하고 소요 자재한 삶을 살았다. 그들 무리[徒]는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불교적 삶과 나라(임금)와 부모를 존중하는 유교적 삶, 그리고 무위의 자연을 소요하는 도교적 삶을 함께 살았다.

때문에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도 이 땅에는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었다. 고려의 이 지백은 "다른 나라의 이법(異法)인 유불신을 행하지 말고 선왕이 행하던 연등(燃燈)·팔관(八關)·선량(仙郎) 등을 부활하여 다시 행하는 것이 국가를 보위하고 태평하게 하는 길"이라고 성종에게 주청하고 있다. 이들 셋은 불교 이전의 이땅 고유의 세계관이며 이들을 통틀어 우리는 풍류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풍류도 세계관은 신라의 문화를 이어간 고려의 국가 의례로 거행되었다. 이들 의례 속에는 하늘을 주재하는 천신뿐만 아니라 산을 주재하는 산신 및 물을 주재하는 용신 등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다. 그리하여 고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섭해 왔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과 땅에서 살아온 웅녀 사이에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과도 연속된다.

2. 샤머니즘의 불교적 통섭

본디 기마민족의 후예였던 선조들은 이 땅에 정착한 이래 농경을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 이들은 가뭄과 홍수를 이기기 위해 정성을 다해 하늘의 복주정(복주정)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 또 성황당의 고목울 향해 가족의 무사와 무탈을 기원했다. 이들은 하늘님인 환인을 숭상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큰 바위나 우주수(宇宙樹)를 숭배했다. 하늘로 우뚝 솟은 바위와 큰 나무는 신이 내려오는 길이었다. 불은 솟은 바위 밑의 감실 앞이나 나무 밑 제단은 정성을 들이는 기도처가 됐다. 환웅이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온 박달나무(神檀樹), 늘 티 없이 둥구 밖에 서 있는 느티나무, 동아리를 틀고 타고 올라가는 등나무 등은 대표적인 당나라 나무였다. 사람들은 이 당나무에 탁주(태백트 경문)와 같은 올곧불같은 천들을 걸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람'을 일으키는 이 당나무를 향해 축제를 벌이고 향을 사루며 음식을 올리고 정성을 들였다. 산과 나무는 기원자에게 감응해 현몽하거나 현실했다.

이렇게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온 무속신앙은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는' [祈禳

災] 공능을 확보해 갔다. 하지만 불교계는 공인 이후 천신신앙과 고목신앙을 대체해 가면서 사상계를 주도해 갔다. 그 결과 산신은 바위 밑 감실 옆에 산신각으로 자리잡았고, 칠성은 바위 꼭대기 아래에 칠성각으로 자리잡았다. 이들 옆에는 나반존자를 모신 독성각이 세워졌다. 불교는 점차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독성각과 산신각을 아우르기 위해 강우(降雨)와 수명(壽命)과 재복(財福)을 주재하는 칠성을 칠성여래 혹은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로 승화시켜 산신과 독성을 삼성각(三聖閣, 三神閣) 안으로 이끌고 왔다. 이제 삼성 혹은 삼신이 삼성각 안에 함께 들어오면서 이 땅의 전통적 신앙은 불교로 통섭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신들은 점차 불법을 지키는 호

홍익인간은 인간중심과 존엄사상 불교 전래 이전 고유한 삶의 방식 전통신, 호법신장으로 불교통합돼

법신장으로 수렴됐다. 환인이 전통적 하늘님인 도리천주인 제석(帝釋)으로 비정된 것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불교의 우주관을 접목하여 민족사를 재구성했다. 불교는 육계(6천)와 색계(18천)와 무색계(4천)를 아우르는 삼계를 28천으로 세분하고 있다. 불교의 백과사전인 당나라 도세(道世)의 <법원주림>(100권)에 의하면 육계 제2천인 도리천은 선견성(空)이며 이곳을 지키는 주인은 제석이다. 도리천은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으며 지거천(地居天)의 끝이자 공거천(空居天)의 시작이다. 그 중앙에 제석천이 있고 사방에 각기 8천(天)이 있어 합하면 33천이 된다. 천태가인 형제 담연(南溪湛然) 삼계를 6도(道)·25유(有)·9지(地)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처럼 불교의 세계관에 의해 일연은 환인을 불법의 호법신장인 '제석'으로 비정했다. 그러면서 일연은 왜 우리의 하늘님 환인을 제석으로 비정했을까? 그는 몽고의 침입에 의해 '주체'와 '구심'을 상실한 우리의 역사를 불교적 역사로 새롭게 세워내고자 했다. 우선 일연은 전통적 하늘님 환인을 불교적 하늘님인 제석으로 비정했다. 이것은 일연의 거대한 문화적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서 불교는 전통의 담지자로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및 과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갔다. 종래 무속 신앙은 특히 부여의 제천행사인 영고, 고구려의 동맹 등에서처럼 집단 곳의 원형으로 자리 잡아 왔다. 우리 조상들은 집단



민족성지인 백두산 천지. 옛 선조들은 우리 민족의 기원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다.

곳을 통해 풍성한 수확과 공동체의 안녕을 빌었다. 이들 집단 곳은 '푸는 의식'으로서 가무와 놀이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 정서의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던 무속 신앙은 현실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를 위한 받고,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며 정신세계를 활발하게 드높였다. 그리고 외래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불교에 흡수된 무속신앙은 이제 전통문화의 구심인 불교의 주변부에서 전통문화의 아이러니로 자리해 오고 있다.

3. 불교적 우주관의 건립

제석은 '석제환인' (帝釋桓因) 혹은 '석가제바인다라' (釋迦提婆因陀羅) 또는 '석가제환인다라' (釋迦提桓因陀羅) 등으로도 불린다. '사크라'(Sakra)는 번역하여 '능(能)'이라 하고, '제바'(提婆, Deva)는 '천(天)'이라 하며, '인다라'(因陀羅, Indra)는 '주(主) 혹은 '제(帝)'라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석제환인'은 곧 '능천주(能天主) 혹은 '능천제(能天帝)로 옮겨진다. 이 제석은 육계 제2천인 도리천(33천)에 있는 선견궁(城)의 제왕이다. 그는 묘고산(妙高山, 須彌山) 꼭대기에 머물며 33천의 제왕이 되었다. 그는 지거천의 끝이자 공거천의 시작인 수미산정에 머무르며 주변의 8천왕을 다스린다. 그는 큰 위력을 가지고 32천을 다스리면서 불법을 보호하는 하늘의 임금이다. 일연은 부계적 천신인 환인을 육계 제2

천인 도리천의 성주인 제석으로 비정했다. 그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은 지상과 천상의 관문을 지키는 제석을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으로 비정함으로써 이땅을 불교적 우주관으로 새롭게 재편한 것이었다. 일연은 당시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했던 세계관인 불교를 통해 우리 역사를 새롭게 재구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원나라의 무도함에 맞서기 위해 불법을 통해 새로운 역사 만들기에 동참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중국(원)과 대등한 역사의 기치를 통해 당시 고려 지식인들에게 우리 역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왕권이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부른 해가 요(堯)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 경인년(경사년?)으로 할주(削注)를 단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단군이야기에 의하면 하늘의 제왕인 하늘님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지상의 웅녀를 만나 단군을 낳았다. 단군 왕검은 47대의 세계(世系)를 가진 실존 왕조의 개조이다. 그는 조선의 개국조이자 부계적 천신인 환인의 아들인 환웅과 모계적 지모신인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것은 조선의 시원이 중국의 시원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연은 '기이'편 서문에서 중국의 성인인 공자가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의 개조 혹은 개국조들이 괴력난신을 통해서 태어났음을 기술한 중국 역사가들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

다. 이것은 공자를 성인으로 떠받드는 중국 지식인들의 자기당착이요 자기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연은 "조선(삼국)의 개조 혹은 개국조들 역시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탄생했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괴이하다"고 역설하면서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

일연은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의 가치를 내세우는 선사(禪師)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들의 삶의 본질을 담아내는 역사서를 찬술했다. 일연은 출가자로서 국가와 제도 및 역사와 사상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우리의 그것들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화를 신화로서 이해하고, 역사를 역사로 인식하는 매우 냉철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다.

또 일연은 선사이면서도 국사(國師)의 소임을 다했고 남해 분사도감의 대장경 판각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한 선각자였다. 때문에 그는 삶의 본질을 담아내는 역사 기술의 중요성을 남다르게 인식했고 그 결과 우리 민족의 수트라인 <삼국유사>를 찬술해 낼 수 있었다. 이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대한 일연의 투철한 확신과 보살적 자비심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영성 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p>불자 정보 857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남구 봉덕1동 봉덕시장 내 • 2층, 3층 각 70평씩, 합 140평 • 2층: 공양실, 휴게실, 찜질방, 강의실, 화장실 • 3층: 법당, 삼존불, 종무실, 주지방, 1부전방, 1보살방 • 시설최상, 단정되어 있음, 소분65불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100만원 합5500만원 <p>010-2878-3380</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전 • 시내 한복판 포교원 • 조용히 공부하시며 지내실분을 찾습니다 • 보증금 200만원, 월세 18만원 • 관리비 10만원 정도 • 시설비 250만원 <p>010-9117-5721</p>	<p>포교원(급)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강서구 화곡역 7번출구 • 평수 50평 • 가액: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121만원 • 시설비 1천만원 (조정가능) <p>010-4740-3001</p>	<p>암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상주 • 대지 150평 • 건평 35평 • 법당, 요사채, 방4칸 • 가액 1억 5천만원 <p>010-9515-9559</p>	<p>포교원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곤지암IC에서 10분거리 • 대지 472㎡ • 건물 (철골조) • 1층 140㎡ (등기외 60㎡) • 2층 56㎡ (등기 외 12㎡) • 1.2층 복층구조 • 가액 : 2억 5천만원 <p>010-4330-5844</p>	<p>포교원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기장, 시장부근 • 상가건물 3층중 2층 • 31평 • 삼존불, 시설완벽 • 전세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절충가능 <p>010-2565-7200</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지 190평 • 산신각, 용왕당 대웅전(23평), 종각 요사채 • 가액: 1억 7천만원 (시설비 포함) • 몸담 오시면 됩니다 <p>010-6787-6624</p>	<p>서울근교사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30분거리 남양주 오남 신도시 지역 • 30만 신도시 불교 불모지 • 호수가 인접 아늑한 곳 • 토지 500평, 법당 30평, 요사채 70평, 서별당 20평(가건물) • 종교법인등록 완료 • 비구니 스님에 한함, 무속스님 불허 • 양도 동장금 3천만원 <p>010-6600-1377</p>	<p>포교원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 종합 터미널 10분거리 • 대지 50평 • 방3, 세놓을 수 있음 • 법당 - 아마타 삼존불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p>011-381-1102</p>	<p>암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 대전에서 45분, 시내에서 20분 이내 • 평수 730평 • 건물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인법당 • 문필봉과 일월양봉이 보이는 정경지역으로 공기와 물이 좋으며, 겨울에도 따뜻한 곳 • 심야보일러, 상수도, 조경시설 및 주차장 • 가액: 1억 5천만원 <p>011-9514-7787</p>	<p>포교원(급)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2층 • 30평가량 • 법당, 거실, 방2, 주방, 화장실, 창고 등 • 삼존불, 맞출명화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면담 후 결정 <p>055)277-0146 010-4135-1198</p>	<p>토굴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 양평 • 대지 205평, 건평 57평 • 2층건물, 목조 황토, 기와 기붕(라운도형) • 뒷산 계곡 있음 • 가액: 4억 • 전세는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p>010-4562-1081</p>	<p>포교원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인천시 남구 송의동 • 평수 : 33평, 4층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800만원 <p>070-8910-5161</p>
<p>영천 토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국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p>011-505-6505</p>	<p>포교원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 • 2층 약 50평, 방3칸, 주방, 욕실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담사 후 절충 <p>010-9199-7897 053)311-9686</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충으로 처리 •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9천만원 <p>010-3569-3021 010-2659-5830</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김천소재 • 대지 공동사용(도지 1년 35만원) • 건물 약 28평, 단청집 전체사용 • 건물 등기 있음, 사용 편리함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위치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가액: 4천만원 <p>010-7295-1259</p>	<p>도심사찰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60평(3층건물) • 가액: 5억(은행대출가능) • 양도받을 분의 조건에 맞춤 양도 <p>011-800-0005(주인)</p>	<p>암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의령군 공유면 자골산 부자골 • 대지 330평, 건물 70평 • 천신기도도량 • 마당 앞 바로 계곡 있음 • 가액: 상당 후 조절 <p>055)573-8802 010-8904-9284</p>	<p>도심포교원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강원도 동해시 시내 • 대지 170평, 건물 40여평 • 창고 약 6평, 방4개, 법당1개, 공양간, 화장실2, 보일러실, 발로연탄, 기를결음 • 삼존불, 후불탱화, 108 호신불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모든시설완비, 몸담 오시면 됨 <p>010-8653-3216</p>